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2:1-17

2, 3절,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Verse 2, 3. *An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which he had mad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he had made. And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hallowed it; because that in it he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in making created.*

※ 2, 3절 속뜻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육 일간의 일, 곧 영적 인간은 주님이 일하신 (*has worked*) 날인 반면, 거듭남의 완성, 곧 천적 인간은 주님이 쉬시는 (*rest*) 날, 곧 안식일(שבת *샤바트*, *sabbath*)입니다. ‘일곱째 날’, 천적 인간, 안식일, 주님은 모두 같은 말

입니다. 거듭난 당사자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분은 주님이시므로 주님이 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성별하사 복되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이 거듭남입니다. ‘창조하다’(*create*), ‘짓다’(*form*), ‘만들다’(*make*) 하는 표현들은 모두 사람의 거듭남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84 천적(天的, *celestial*) 인간이 ‘일곱째 날’인데요, 주께서 육 일간 일하셨기(*has worked*) 때문에 이 일곱째 날, 곧, 천적 인간을 ‘그의 일’(*his work*)이라 하며, 이때 모든 전투가 그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The celestial man is the “seventh day,” which, as the Lord has worked during the six days, is called “his work”; and as all combat then ceases, the Lord is said to “rest from all his work.”*

이런 이유로, 이 일곱째 날은 성별되었고(聖別, *sanctified*), 히브리어로 ‘안식’(*rest*)이라는 뜻을 가진 ‘שבת’

창2:2-3, AC.84-88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샤바트, *sabbath*)라고 합니다. *On t his account the seventh day was s anctified, and called the sabbath, f rom a Hebrew word meaning “re st.”*

이렇게 사람(*man*)은 창조(*created*) 되었고, 형성(*formed*)되었으며, 만들어(*made*)졌습니다. *And thus was man created, formed, and made.*

이 모든 것이 말씀들로부터 아주 분 명합니다. *These things are very e vident from the words.*

85 천적 인간이 ‘일곱째 날’이 며,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 록하게 하시고, 안식일이라 하셨다 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 아케이나(*arcana*, 秘義)입 니다. *That the celestial man is the “seventh day,” and that the seven th day was therefore hallowed, an d called the sabbath, are arcana w hich have not hitherto been discov ered.*

천적 인간의 본성을 접해 본(*have b een acquainted with*) 사람은 지금 까지 아무도 없었고, 영적 인간의 경우는 약간 있었는데, 앞서 81번

글을 보면, 천적 인간과 영적 인간 사이, 실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지의 결과, 그들은 천적 인간 행세를 했습니다. *For no ne have been acquainted with the nature of the celestial man, and fe w with that of the spiritual man, whom in consequence of this igno rance they have made to be the s ame as the celestial man, notwiths tanding the great difference that e xists between them, as may be se en in n. 81.*

※ 성 프란치스코를 비롯, 성 분도 요셉 라브르, 그리고 수많은 아토스 성산 수도사들과 그 많은 성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 역시 사실은 영 적 인간의 완성 혹은 천적 인간에 아주 근접한 경우들이지 실제로 지 상에서 천적 인간이 되어 그 본성을 접해 본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에, 성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대한 현주소를 확인,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일곱째 날과 관련하여, 그리고 천적 인간이 ‘일곱째 날’ 혹은 ‘안식일’인 것과 관련하여, 그래서 이것은 주님 자신, 안식일이시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사실로 분명합니다. *As regards the seventh day, and as regards the celestial man bein*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g the “seventh day” or “sabbath,” this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the Lord himself is the sabbath; and therefore he says: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2:28) *The son of man is Lord also of the sabbath, (Mark 2:27)*

이 말씀에는 주님이 친히 사람(*man himself*)이시며, 안식일 자체(*the sabbath itself*)시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which words imply that the Lord is man himself, and the sabbath itself*

※ 49번 글(창1:26)에,

...주님은 태고(太古, *the most ancient*) 교회에 한 사람(*a man*)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 멤버들과 대면하여(*face to face*) 대화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아무한테도 ‘사람’(*man*)이라 하지 않고, 오직 홀로 주님한테만, 그리고 주님에게 속한 것들에만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들은 이 ‘사람들’(*men*)이라는 표현을 감히 자신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만 자기들한테 있는 것들 중, 가령, 모든 사랑의 선과 모든 신앙의 진리 같

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지각된(*perceived*) 것들에 한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참 사람은 오직 홀로 주님 한 분뿐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나라를 일컬어 그분으로 말미암은 안식일, 혹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라고 합니다. *His kingdom in the heavens and on the earth is called, from him, a sabbath, or eternal peace and rest.*

[2] 여기서 다루고 있는 태고교회는 이후 이 교회를 계승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가장 주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The most ancient church, which is here treated of, was the sabbath of the Lord above all that succeeded it.*

주님의 모든 이어지는 내적(*inmost*) 교회들 역시 일종의 안식일입니다. 모든 거듭나는 사람 역시 그가 천적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가 주님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Every subsequent inmost church of the Lord is also a sabbath; and so is every regenerate person when*

창2:2-3, AC.84-88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he becomes celestial, because he is a likeness of the Lord.

※ 51번 글(창1:26)에,

...‘형상’ 관련해서는, 형상(*an image*)은 모양(*a likeness*)이 아니고, 모양을 따르는 것(*according to the likeness*)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입니다.

영적(靈的, *spiritual*) 인간은 형상, 천적(天的, *celestial*) 인간은 모양, 혹은 닮음(*similitude*)입니다.

영적 인간은, 일종의 ‘형상’인데요, 주님은 그를 가리켜 ‘빛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천적 인간은, 이 사람이 ‘모양’인데요, 주님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형상은 모양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닮은, 주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겉뿐 아니라 속도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이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때가 바로 천적 인간, 곧, 안식 상태의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육 일간의 전투 혹은 수고가 선행합니다. *The six days of combat or labor precede.*

※ 59번 글(창1:30)에 나오는,

...거듭남의 과정을 보면, 사람이 영적 인간이 되어 갈 때, 그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의 교회를 ‘전투적’(*militant*)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거듭남 이전엔 탐욕(*cupidities*)이 지배적(*the dominion*)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그 자체가(*the whole man*) 그저 탐욕과 탐욕에서 나오는 거짓으로만 되어 있기(*composed of*)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동안 이들 탐욕과 거짓이 순간적으로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존재 자체가(*the whole man*) 파괴되기 때문인데, 이들 탐욕과 거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습득한(*has acquired*)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오랫동안 그와 함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즉, 그들은 일단 그의 탐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

만 끊임없이 계속 그러다 보면 사람은 나중엔 이런 탐욕의 추구에도 지루해하며, 싫증을 느끼고 느슨해지게 마련이며, 그 결과, 결국엔 주님에 의해 선 쪽으로 기울어질 정도가 되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개혁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주님은 섬세하시며, 사람 일생의 모든 악과 거짓조차 이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은 현재 거듭남의 과정 중인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자녀, 성도는 물론, 기타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 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교회에서 육 일간의 수고와 일곱째 날 안식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도입된 어느 것 하나 주님과 주님 나라에 대한 표상(*representative*)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These things were represented in the Jewish church by the days of labor, and by the seventh day, which was the sabbath; for in that church there was no thing instituted which was not rep*

resentative of the Lord and of his kingdom.

같은 설명이 궤(*the ark*, 여호와와 법궤)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궤가 나아갈 때와 궤가 쉴 때로 말이지요. 궤가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는 것으로는 영적 전투와 시험(*combats and temptations*)을, 그리고 궤가 쉬는 것으로는 일종의 평화의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궤가 나아갈 때, 모세는 말하기를 *The like was also represented by the ark when it went forward, and when it rested, for by its journeyings in the wilderness were represented combats and temptations, and by its rest a state of peace; and therefore, when it set forward, Moses said:*

³⁵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³⁶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10:35-36) *Rise up, Jehovah, and let thine enemies be scattered, and let them that hate thee flee before thy faces. And when it rested, he sai*

창2:2-3, AC.84-88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d, Return, Jehovah, unto the ten thousands of the thousands of Israel. (Num. 10:35 - 36)

거기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을 떠나 ‘그들의 쉼 곳을 찾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라 하였습니다. *It is there said of the ark that it went from the Mount of Jehovah “to search out a rest for them” (Num. 10:33).*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 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쉼 곳을 찾았고 (민10:33)

[3] 천적 인간의 쉼을 이사야에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rest of the celestial man is described by the sabbath in Isaiah:*

¹³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¹⁴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

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58:13-14) *If thou bring back thy foot from the sabbath, so that thou doest not thy desire in the day of my holiness, and callest the things of the sabbath delights to the holy of Jehovah, honorable; and shalt honor it, not doing thine own ways, nor finding thine own desire, nor speaking a word; then shalt thou be delightful to Jehovah, and I will cause thee to be borne over the lofty things of the earth, and will feed thee with the heritage of Jacob. (Isa. 58:13 - 14)*

이것이 천적 인간의 질(質, quality)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적 욕구(*his own desire*)가 아닌, 주님의 선하신 즐거움(*good pleasure*)을 따르는데, 이것이 그의 ‘즐거움’(*desire*)입니다. *Such is the quality of the celestial man that he acts not according to his own desire, but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the Lord, which is his “desire.”*

그 결과, 그는 내적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위 말씀, ‘땅의 높

은 곳에 올리고’로 표현된 의미이며, 동시에 그는 걸으로도 평온과 큰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이 바로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의 의미입니다. *Thus he enjoys internal peace and happiness—here expressed by “being uplifted over the lofty things of the earth” —and at the same time external tranquility and delight, which is signified by “being fed with the heritage of Jacob.”*

86 ‘여섯째 날’이 된(*has become*) 영적 인간이 이제 천적 인간이 되려고 하는(*is beginning to be*) 상태를 여기서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가 유대교회에서 말하는 ‘안식일 저녁’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을 저녁부터 지키는 것으로 표현했지요. *When the spiritual man, who has become the “sixth day,” is beginning to be celestial, which state is here first treated of, it is the “eve of the sabbath,” represented in the Jewish church by the keeping holy of the sabbath from the evening.*

천적 인간은 이제 말씀드릴 ‘아침’입니다. *The celestial man is the “m*

orning” to be spoken of presently.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던라 (눅23:54)

※ 유대인의 안식일은 여섯째 날인 금요일 일몰부터 일곱째 날인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유대 지역 일몰이 보통 오후 5시라고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때가 오후 3시 즈음이라 두 시간 만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 아주 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시면서 복음서 관련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한결 와닿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은 결코 월요일, 화요일... 같은 요일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 영어식 표현의 유래가 고대 앵글로 색슨계 신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창세기 1장 표현대로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명칭을 사용합니다.

87 천적 인간을 가리켜 ‘안식일’ 또는 ‘셋’이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천적이 될 때, 전투가 그치기 때문입니다. *Another reason why the celestial man is the*

창2:2-3, AC.84-88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sabbath,” or “rest,” is that combat ceases when he becomes celestial.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선한 영들과 천적 천사들이 다가옵니다. 이들이 있으면 악한 영들은 도저히 머무를 수 없어 멀리 달아납니다. *The evil spirits retire, and good ones approach, as well as celestial angels; and when these are present, evil spirits cannot possibly remain, but flee far away.*

전투를 치른 사람이 이 사람 본인이 아니라 홀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And since it was not the man himself who carried on the combat, but the Lord alone for the man, it is said that the Lord “rested.”*

88 영적 인간이 천적 인간이 될 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이라 합니다. 주님 홀로 그를 위해 지금까지 싸워오셨고(*has fought for*), 지금까지 그를 창조해 오셨으며, 지으시고 만들어 오셨기(*has created, formed, and made*)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

치시니’ 하는 것이며, 한 번 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When the spiritual man becomes celestial, he is called the “work of God,” because the Lord alone has fought for him, and has created, formed, and made him; and therefore it is here said, “God finished his work on the seventh day”; and twice, that “he rested from all his work.”*

인간은 선지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여호와와 손과 손가락으로 한 일’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By the prophets man is repeatedly called the “work of the hands and of the fingers of Jehovah”; as in Isaiah, speaking of the regenerate man:*

¹¹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¹²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¹⁸대저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²¹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45:11-12, 18, 21) *Thus hath said Jehovah the holy one of Israel, and his former, Seek ye signs of me, signs concerning my sons, and concerning the work of my hands command ye me. I have made the earth, and created man upon it; I, even my hands have stretched out the heavens, and all their army have I commanded. For thus hath said Jehovah that createth the heavens, God himself that formeth the earth and maketh it; he establisheth it, he created it not a void,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I am Jehovah and there is no Go*

d else besides me. (Isa. 45:11 - 12, 18, 21)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새 창조, 혹은 거듭남은 오직 주님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Hence it is evident that the new creation, or regeneration, is the work of the Lord alone.*

‘창조하다’(create), ‘짓다’(form), ‘만들다’(make)라는 표현들을 다음 두 가지 경우와, 또 창세기 본 장과 앞장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구절 중,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하는 부분, 그리고 같은 이 사야 다른 구절, 예를 들면, *The expressions to “create,” to “form,” and to “make,” are employed quite distinctively, both in the above passage – “creating the heavens, forming the earth, and making it” – and in other places in the same prophet, as:*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43:7) *Everyone that is called by my name, I have created him for m*

창2:2-3, AC.84-88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y glory, I have formed him, ye
a, I have made him, (Isa. 43:7)*

또 창세기 1장과 지금 2장,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and also in both the preceding and this chapter of Genesis; as in the passage before us: “he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in making created.”*

속뜻을 생각할 때, 이런 용법을 만나면 늘 그 표현들을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다음 케이스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주님을 가리켜 ‘창조하시는 분’(creator), ‘빚으시는 분’(former), ‘만드시는 분’(maker)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지요. *In the internal sense this usage always conveys a distinct idea; and the case is the same where the Lord is called “creator,” “former,” or “maker.”*